

Dear Shareholders

2024년 1분기 주주서한



Dear Shareholders,

케이프리얼자산금융(이하 '케이프리얼')은 2024년 3월 26일 투자설명회 동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사모입찰투자자는 입금이 예정된 전용저축 계좌 및 이양년저를 위한 계좌를 원하는 고객분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케이프리얼의 실질 전략에 대해 우선 소개를 드린 후 2024년 1분기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실적

케이프리얼의 실적 전략은 두 개의 큰 영역에서 총 4가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A. 주식 집중형 전략
 - 1) 글로벌 선두주 전략
 - 2) 한국 주주문화 전략

- B. 재일외 자산 배분 전략
 - 1) 글로벌 성장 전략 (우리의 글로벌 성장 전략)
 - 2) 자산배분 전략 (우리의 기존 전용저축 전략)

주식 집중형 펀드는 당시의 상황이 리스크를 기반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전략, 그리고 반도체 산업의 무한한 성장성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였습니다. 두 전략 모두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최소 자금 고려 시 고객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초기에는 1억 미만의 자금도 받을 예정입니다. 해외의 자산 배분 전략은 주로 글로벌 펀드 시장에 진출할 시를 대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를 위한 글로벌 성장 전략과 그들의 부모님과 조부모님을 위해 연금저축 계좌 내에서 2FA 를 통한 자산배분 전략을 제공합니다.

일일은 고객과 자산운용사가 계약을 맺은 후 고객의 증권 계좌에 주문대리인으로 자산운용사가 등록되는 제도인 만큼, 증권사로부터 별도의 적자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외펀드가 가진 장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 금융업에서의 일일은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성과보수 등을 위한 단기적인 관점의 전략이 많은 편이라 아쉬움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함에 따라 디지털 채널의 활용과 같은 고객과의 소통 방법 등에 있어서는 유연해야 하지만, 투자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자산운용업의 신뢰성 등의 원칙 등에 대한 철학은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길릴지라도, 케이브리얼의 철학과 원칙에 맞는 투자를 해 나갈 것이며,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 등의 전문투자자를 제외하고는 당사는 성과보수를 받지 않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일일 실적에 대해서는 2분기 주주레터에서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해외집합투자

*케이브리얼한국기업문화사회투자신탁에 대해 투자하고는 12월 말 기준 약 28억 달러 8월 말 기준 약 26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평가액 기준으로는 약 28억 달러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 6월 29일 해외집합투자 인가를 받은 지 1년이 됩니다. 각 증권사의 글로벌 펀드 자산운용사 기준 공시인식 후 1년 후 기준에 대한 계약이 있던 증권사들에게는 해당 펀드에 가입과 관련 제도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3. 2024년 1분기(2억) 평가 실적

케이브리얼 1분기 (2024년 1월 1일-2024년 3월 31일) 당일 수익 및 당일비용은 각각 66,897,481 원과 77,467,246 원을 기록하였으며, 순손실은 10,570,442 원 입니다. 주주레터를 작성 중인 현재 일일 계약들이 진행됨에 따라 수수료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고금자금이 투자됨

케이브리얼한국기업문화사회투자신탁의 변동성이 크게 반영하지 않는 편 손실은 평균적으로 최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양질의 사업과 중·저리융합사업의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 1차안을 포함하여 11개 소관
 신원사업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 있으며, 각 소관위원회 평가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2024년 3월 및 4월 이후부터는 각 소관 위원회에 제출한 11개 소관 사업별 사업성과 향상을 통해 추진여부
 가 결정됩니다.

4. 운영

제1차년도사업평가사업관리위원회는 2024년 1분기 말 기준 실적은 실적지표, 11개 소관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11개 소관 위원회에서 실적평가 기준, 현재 실적평가 결과 평가일 실적 실적지표를 11개 소관위원
 회별 평가결과를 통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양질의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제1차년도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
 위하여 사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11개 소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합니다.

실적		11개 소관 위원회 실적지표	
제1차년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연간 실적		
제2차년도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연간 실적		
합계		합계	

5. 기대효과

사업 평가에 제1차년도 실적향상 실적, 양질의 사업성과 향상을 위한 제1차년도 사업성과 향상을 포함하여 11개 소관
 위원회 평가 결과, 각 위원회 평가 실적 및 실적향상을 위한 제1차년도 사업성과 향상을 포함하여 추진합니다.

종목		2024
지정 발행액	세이디	25
	지정	20
지배권	공채	8
	상장	1
	부채	1
	장기	1
	부채	1
	공채	1
	상장	1
	부채	1
	장기	1
	기타	4
특수권	공채	8
	상장	1
	부채	1
	장기	1
	부채	1
	공채	1
	상장	1
	부채	1
	장기	1
	기타	1
	공채	1
	상장	1
	부채	1
총계	20	

이국의 대형 자산운용사 중 하나인 캐피탈그룹(Capital Group)은 펀드매니저들이 최종 고객과의 직접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끔 자산운용사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운용사도 새로운 CEO의 리더십 하에 펀드매니저들과의 대화를 담은 전략서를 시작하였습니다. 운용보고서 등을 통한 고객과의 소통, 혹은 판매사 측들이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은 자산운용사의 차별화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금융상품은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와 다르게 고객이 비용을 지불하여도 즉각적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시간'이라는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기다림 속에는 가격의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는 고객이 이성을 지배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고객이 그러한 감정을 이겨내고 복리 효과의 기대화를 위해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자산운용업 마케팅의 중요한 역할이며, 적절한 '소통'은 그 출발점입니다. '소통'은 쉬워 보이지만, 그 '소통'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바로 그러한 지속성(Consistency)과 중요함에 가까운 꾸준함(Persistence)이 캐피탈그룹의 차별성이 될 것입니다.

당사의 소통에 있어서 굳건이 되고 있는 캐피탈그룹인사이드 글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bit.ly/capitalinsightsinsight>

6. 경영지행 및 공법공서

경영지행 업무는 회사의 재산을 창출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다른사이드 리스크를 방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제가 임직원들에게 소통한 원칙은 '가정하지 마라(Don't Assume)'입니다. 사람은 무의식 중에 '다수'가 하는 일은 '맞다'라고 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을 깨트려 게이브리얼 내에 자리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은행 등 자산운용업 관련 기관들에 보고해야 하는 내용, 법이나 규정의 해석 등은 최종 담당자를 찾아서 소통하고 그 기록을 유선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법공서일과의 내부적인 소통 역시 정기 및 임시 이팅을 통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7. 사회적 책임

이번 분기 게이브리얼 임직원들은 *Sharing & Giving* 을 비롯하여 총 5회의 재능 기부 금융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순차전회지업계형지음연회와 4월 1일 업무협약(MOU)을 맺으며 지역 사회 내 청소년의 진로직업 교육을 위한 협업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업데이트는 2분기 주주레터에서 상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으며, 자본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수익이 강조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산업인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관점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할 때 남과 다른 긴 여정을 택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비디아(Nvidia)의 창업자이자 CEO인 쟈슨 황(Jensen Huang)이 항상 강조하듯, '어려운 도전을 취하게 강행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철저하게 세운 시간이 주어지며, 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라는 혁신의 기본 원리는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산운용업에서 '수익', 혹은 '완전' '목적'이 아닌 '결과'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업들에 대해 리서치를 하고 투자를 집행하여 세운 값진 교훈들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자산운용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able 1
Summary of the data

Year	Country	Number of cases		Number of deaths	
		Confirmed	Probable	Confirmed	Probable
2009	USA	100	0	0	0
2010	USA	100	0	0	0
2011	USA	100	0	0	0
2012	USA	100	0	0	0
2013	USA	100	0	0	0
2014	USA	100	0	0	0
2015	USA	100	0	0	0
2016	USA	100	0	0	0
2017	USA	100	0	0	0
2018	USA	100	0	0	0
2019	USA	100	0	0	0
2020	USA	100	0	0	0
2021	USA	100	0	0	0
2022	USA	100	0	0	0
2023	USA	100	0	0	0
2024	USA	100	0	0	0
2025	USA	100	0	0	0
2026	USA	100	0	0	0
2027	USA	100	0	0	0
2028	USA	100	0	0	0
2029	USA	100	0	0	0
2030	USA	100	0	0	0
2031	USA	100	0	0	0
2032	USA	100	0	0	0
2033	USA	100	0	0	0
2034	USA	100	0	0	0
2035	USA	100	0	0	0
2036	USA	100	0	0	0
2037	USA	100	0	0	0
2038	USA	100	0	0	0
2039	USA	100	0	0	0
2040	USA	100	0	0	0
2041	USA	100	0	0	0
2042	USA	100	0	0	0
2043	USA	100	0	0	0
2044	USA	100	0	0	0
2045	USA	100	0	0	0
2046	USA	100	0	0	0
2047	USA	100	0	0	0
2048	USA	100	0	0	0
2049	USA	100	0	0	0
2050	USA	100	0	0	0

Table 2
Summary of the data

Year	Country	Number of cases		Number of deaths	
		Confirmed	Probable	Confirmed	Probable
2009	USA	100	0	0	0
2010	USA	100	0	0	0
2011	USA	100	0	0	0
2012	USA	100	0	0	0
2013	USA	100	0	0	0
2014	USA	100	0	0	0
2015	USA	100	0	0	0
2016	USA	100	0	0	0
2017	USA	100	0	0	0
2018	USA	100	0	0	0
2019	USA	100	0	0	0
2020	USA	100	0	0	0
2021	USA	100	0	0	0
2022	USA	100	0	0	0
2023	USA	100	0	0	0
2024	USA	100	0	0	0
2025	USA	100	0	0	0
2026	USA	100	0	0	0
2027	USA	100	0	0	0
2028	USA	100	0	0	0
2029	USA	100	0	0	0
2030	USA	100	0	0	0
2031	USA	100	0	0	0
2032	USA	100	0	0	0
2033	USA	100	0	0	0
2034	USA	100	0	0	0
2035	USA	100	0	0	0
2036	USA	100	0	0	0
2037	USA	100	0	0	0
2038	USA	100	0	0	0
2039	USA	100	0	0	0
2040	USA	100	0	0	0
2041	USA	100	0	0	0
2042	USA	100	0	0	0
2043	USA	100	0	0	0
2044	USA	100	0	0	0
2045	USA	100	0	0	0
2046	USA	100	0	0	0
2047	USA	100	0	0	0
2048	USA	100	0	0	0
2049	USA	100	0	0	0
2050	USA	100	0	0	0